

“주민 위해 일 해줄 분 없나요”... 통장 구인난 심화

월 수당 30만원 비해 업무 과다 행정홍보·민방위보조 등 업무 광주 통장 2478명 중 31명 결원 “복지·임금·명예 처우 개선 필요”

위기 가구 발굴·마을 여론 수렴 등 ‘도시의 이장’이라 불리는 통장이 사라지고 있다. 늘어난 업무에 비해 처우·인식 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다. 과거 지원자가 많아 심사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전문가 등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수당 대비 업무량 많아 ‘기피’

“그 시절 통장이 아니죠. 요즘엔 주민들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든걸요. 개인 사생활 이다 뭐다 해서 항의 전화까지 옵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14년째 통장직을 수행하는 강경희씨는 올 초 진행된 ‘세대 명부 조사’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관내 실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세대 명부 조사’는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야 해 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이웃 간 단절 분위기가 강해진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겼다.

강 통장은 “집 열 곳의 문을 두드리면 열여섯 개의 손이 한 두 곳뿐이다. 그마저도 ‘문전박대’ 당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며 “통장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도 한다. 지역 복지망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주민들의 협조가 현저



지난달 14일 광주 동구 학운동 거리에 걸린 통장 모집 공고 현수막.

히 줄어들었다”고 씁쓸해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구는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민방위 대장의 임무 및 민방위 훈련 보조 △반장 지도·감독 △반상화·동네 청소 운영 △각종 사건사고·세대 명부 조사 등 지역 동향 보고 업무를 맡는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들에겐 임기 2년간 매월 수당 30만원과 설·추석 상여금 30만원·자녀 장학금·상해보험 가입·회의수당 2만원 등이 지급된다. 그러나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강 통장은 “과거 통장 일을 ‘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차 업무량

이 늘고 사회적 인식도 안 좋아지면서 적임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특히 인구 전·출입이 잦은 재개발·재건축·주택 밀집 지역은 지원자가 없어 공석이 많다. 이 경우 옆 통장이 2곳을 겸임하기도 하는데, 살지도 않는 곳에서 통장을 하려다 보니 유대 요소 등이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 결국 고노동·저임금에 치져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그만두게 된다”고 꼬집었다.

●“인센티브 등 처우 개선을”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광주 통장 정원은 △동구 204명 △서구 422명 △남구 444명 △북구 617명 △광산구 791명 등 총 2478명이다.

이 가운데 공석은 총 31명으로 △동구 6명 △서구 1명 △남구 8명 △북구 1명 △광산구 15명 등이다.

외관상 정원에 비해 결원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현재 통장은 대부분 여러 차례 공고를 내 겨우 뽑히거나, 공고 마지막 날까지 입후보자가 없어 이전 통장이 겸·연임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강 통장이 14년 동안 통장을 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통장협의회·행정 전문가 등은 지방의 현실에 맞춰 통·반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치구 통장협의회 관계자는 “고령화·인구 절벽 등 지방은 날로 인구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이에 맞게 지역 통장의 기능·혜택도 달라져야 한다”며 “통장 연임 제한 삭제, 겸임 시 추가 봉급 제공, 인센티브·복지 제도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규 호남대 지역사회복지학 교수는 “통장은 그동안 수당보다 ‘명예직’으로 생각해 입후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진 경향이 있다”며 “마땅한 처우 개선도 있어야겠지만, ‘통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당국 차원의 적절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5·18 정신적 손해배상, 산재법 아닌 국가배상법 적용을”

내일 헌법소원심판청구키로 “5·18 유족들도 배상해줘야”

5·18공법단체가 5·18보상법을 두고 배상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예고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

봉)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은 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정신적 피해배상시 산재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등에 따르면 1990년 1차 보상을 시작으로 7차 보상까

지 완료됐으며 현재 8차 보상이 오는 7월부터 개시된다. 법률 제정 당시 ‘신체적·금전적 피해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며 처음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이 포함된 8차 보상이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피해산정 기준을 산재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가배상법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반면 산재법은 14개의 장애등급으로만 분류된다”며 “엄연한 국가폭력 사태를 두고 5·18보상법은 피해 기준을 산재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한 “산재법에 근거한 보상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됐다”며 “지난 43년동안 정신적 피해를 받은 유족들을 배상범위에 포함시킨 국가배상법 적용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보상이 누락된 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결과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며 “정신적 피해배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일 시: 2023. 3. 8(수) 오후 7시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 시: 2023. 3. 1(수) 오후 7시.
·장 소: 상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 + 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